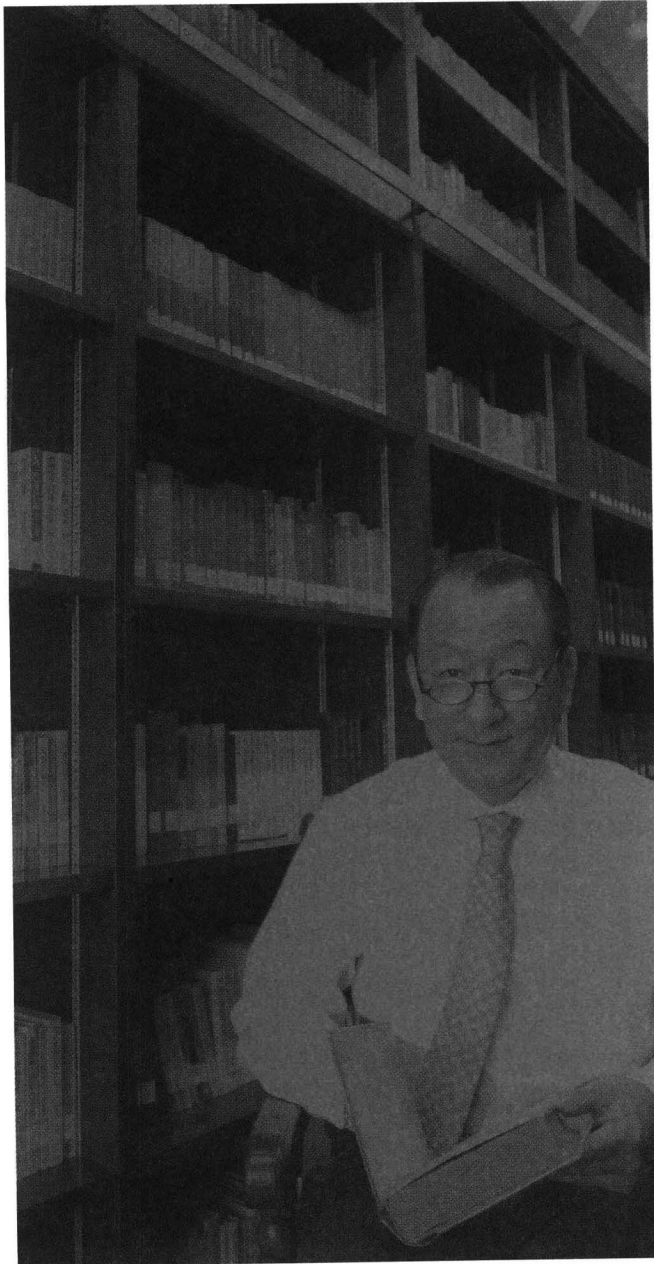


“흠어진 ‘한국’의 흔적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한국관계 고서 모으는 명지학원 유영구 이사장
‘그동안 1만 권 모아…국역 출판계획도’



명지학원 유영구(59) 이사장은 해외출장을 다녀올 때마다 책을 사오는 것이 취미였다. 그렇다고 뭐 대단한 책을 사오는 것은 아니었다. 개인적으로 모으기 위한 것도 있었지만 주로 지인들에게 선물하는 게 목적이었다. 취미나 관심사를 기억해 두었다가 ‘와인 감별법’이라든가 ‘난 기르는 법’ 등과 같이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사주면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었다.

12년째 계속된 고서 모음…단체 조직 필요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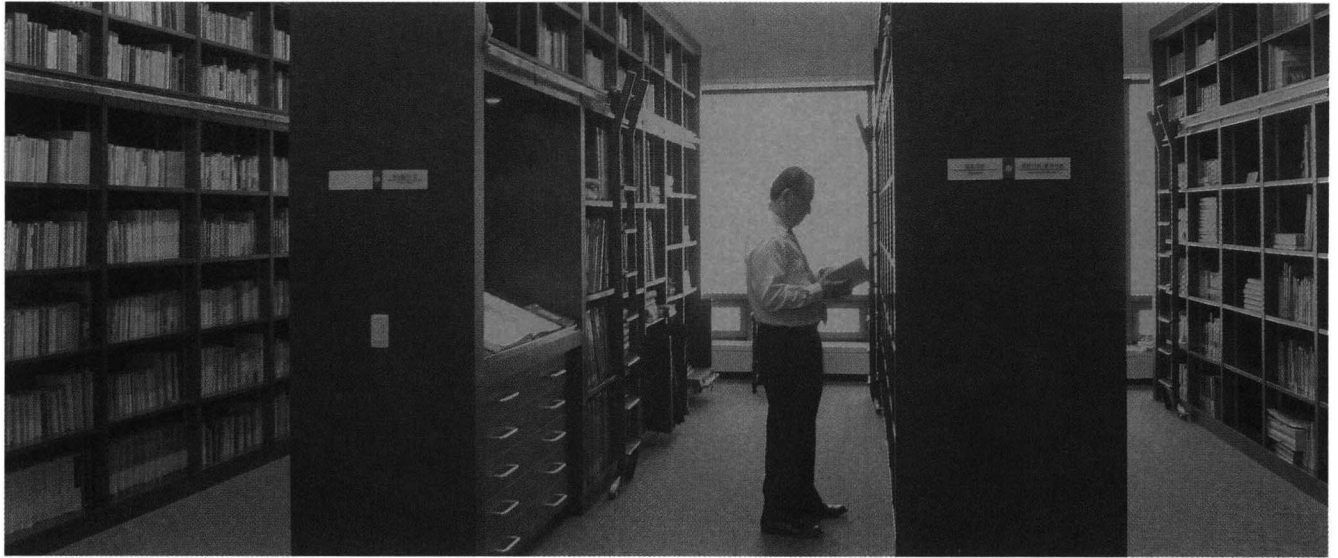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백 년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 고서점 ‘이세이도ISSEIDO’를 방문하게 되었다. 서가를 둘러보며 책을 고르는데 우연히 한국을 다룬 책들이 눈에 띄었다. 제목은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들이었지만 그 책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다. ‘저걸 한국에 가져와 필요한 사람이 읽을 수 있게 해야겠구나.’ 유 이사장의 한국 관련 고서 수집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12년 전이었다.

“고서 수집은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역사에 대한 식견이 필요하고, 또 제가 모으는 게 주로 서양의 책들이 만큼 다양한 언어를 알아야 합니다. 단지 한 개인의 취미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를 지속적으로 맡아서 일할 단체를 조직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LG재단의 후원을 약속받는 등 2년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에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국관계고서찾기운동본부’를 꾸렸다. 그리고 LG재단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은 만큼 모은 책들을 ‘명지대·LG연암문고’로 이름지었다.

인간관계의 인연처럼 책은 ‘서연^{書緣}’ 있어

“사람은 서로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인카운터 encounter’, 동양에서는 ‘인연’이라 합니다. 책도 사람하고 같아서 서연^{書緣}이 있어야 들어오게 마련이에요. 안목[眼], 돈[錢], 기회[機], 인연[緣].



유영구 이사장의 또 다른 취미는 야구구경과 커피 만들기다. 술과 담배를 안 하고 골프도 치지 않는 유 이사장은 손수 볶고 간 커피를 챙겨 LG를 응원하러 야구장에 가는 것을 즐긴다.

이 네 박자가 맞아야 제대로 된 고서수집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한번은 선본을 목록에서 찾아 곧 주문했지만 벌써 팔린 거예요. 그런 때는 정말 어렵고 분하지만 세상에는 나보다 한발 앞선 사람이 있구나 하고 이내 마음을 식입니다.”

값이 좀 비싼 것 같아 망설이다가 놓친 경우도 있다. 중국에 있던 선교사의 연차보고서였다. 16세기 초의 가톨릭의 조선전도계획에 관한 귀중한 사연이 들어 있다. 약 100쪽 정도의 손바닥만한 크기의 책인데 값이 5,000달러나 됐다. 2,3일 미루다가 주문했더니 뜻밖에도 팔려버린 것이다. 고서점의 경우 사간 사람의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어서 수소문해 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또한 고서수집에서 유통정보의 중요성도 빼놓을 수 없다. 아무리 귀중한 고서라고 해도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서양 고서점의 경우 이런 면에서 탁월하다. 운동본부에는 현재 거래하고 있는 서양고서점 100여 곳의 목록이 5,600권 정도 소장돼 있다. 고서를 수집하는 사람으로서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중한 정보다.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지금까지 모은 고서는 1만여 권. 절대량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한국에 대해 다루고 있는 서양 고서로는 그 누구보다 많은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책의 몸은 무가치에 지나지 않는 연약한 종이로 이뤄졌지만 마음은 우주와도 같은 우람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절대모순의 ‘절대존재’, 이것이 책입니다. 많이 바래고 때묻고, 혹은 상하고 찢기기도 했지만 태어난 모습을 지닌 채로 먼 훗날에 또 다른 독자를 만나는 책에서 시공을 넘나든 섭리를 느끼지요. 산성지로 만들어져 백 년을 넘지 못하는 요즘의 책에선 기대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 안에 담긴 보물 길러내려 한국 관계 고서 모아’

그동안 가장 다행스러웠던 점은 우리가 중국보다 고서 모으기를 먼저 시작했다는 것이다. 일본이 일본학의 기본자료를 이미 20세기 초에 모은 것에 비하면 한참 뒤늦은 셈이지만 3년 전부터 모으기 시작한 중국에 비하면 그래도 7.8년 빠른 것이다. 만약 중국이 우리보다 먼저 자국관계 고서를 모았다면 우리가 모을 수 있는 고서는 얼마 남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만을 따로 다룬 책보다는 중국 혹은 일본과 함께 다룬 책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물론 유 이사장이 한국관계 고서를 모은 이유는 단지 모아 한자리에 보관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보물을 길러내기 위함이다.

“사람은 정치적 존재”라 일컬었지만, 저는 ‘역사적 존재’라고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적 자아는 실사구시로 이뤄져야 합니다. 근대를 추진해 온 서양사람들의 한국에 관한 책이나 문헌자료가 우리나라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운동본부는 지난 6월 9일 한국문학번역원(원장 진형준) 측과 한국관련 외국고서의 국역출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1945년 이전에 출간된 명치대·LG연암문고의 고서 중 100 종을 엄선해서 앞으로 5년 동안 국역 출판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는 ‘근대 올림픽의 아버지’ 쿠베르탱 남작이 쓴 《동아시아 운명과 변영의 열쇠》(쿠베르탱·1920년), 《동인도 회사 중국기》(요안 니위토프·1665), 《아시아 대륙기》(어거스트 보르헤크·1792), 《한국 외교사》(존 로스·1879) 등 학술적으로 가치 있는 책들을 중심으로 목록이 짜여져 있어 보다 입체적인 각도에서 한국을 조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민**